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241 호

2020년 1월 1일

- 목 차 -

■ 협회 소식

1. UNGC Open Day: 2021 회원사 간담회
2. 기업재생에너지이니셔티브(CoREi) 스터디 그룹 3 차 미팅 결과 (12/18)

■ 본부 소식

1. 보고를 통한 SDG 리더십, 민간 부문의 SDGs 공시 가속화 지원

■ SDGs 소식

1. [COVID-19 와 기업 지속가능성] UNGC 회원사 대응 사례 - 아모레퍼시픽
2. [SDGs 솔루션] 공업수 재활용에 기여하는 더 나은 여과 시스템

■ UNGC 회원 뉴스

1. LG 화학, 국내 기업 최초로 중국 내 재생에너지 직접구매
2. 교보생명, 다양성 위해 여성임원 비중 확대 본격화
3. 한국타이어, 탄소경영 기후변화대응 '리더십등급' 선정
4. 한국환경공단, 주한덴마크대사관과 바이오가스·그린수소분야 협력

■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2. COP/COE 제출회원
3. 2020년도 연회비 납부 해당 회원사 안내
4. UNGC 로고 사용정책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협회 소식

1. UNGC Open Day: 2021 회원사 간담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세계 최대 글로벌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인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UNGC)'의 한국 네트워크입니다.

2021년의 시작과 함께 협회는 2020년 UNGC에 가입한 신규회원사 혹은 변경된 담당자들을 초청해 국내외 지속가능경영 동향 및 2021년 UNGC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해 안내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간담회는 UNGC 활동에 대한 이해를 더하고, 회원사분들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다양한 현안과 UNGC 운영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2021.1.22. (금) / 2.5. (금) / 2.19. (금) 중 택일

시간: 오후 2시 ~ 3시 30분

장소: 온라인 진행 예정 (참석희망자 대상 ZOOM 링크 별도 송부 예정)

대상: UNGC 회원사 실무자

프로그램:

- 국내외 지속가능경영 동향
- 2021 UNGC 주요사업 및 참여 안내
- 질의 응답

문의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T. 02-749-2150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참석등록 바로가기](#)

2. 기업재생에너지이니셔티브(CoREi) 스터디그룹 3 차 미팅 결과 (12/18)

발표자: 한국에너지공단 김강원 팀장, 솔라커넥트 이창섭 매니저

참가자: (주)두산,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 삼성전자, 삼성 SDI, 아마존, 아모레퍼시픽, 포스코, DI, GSCC, HP, IKEA, KB 금융지주, LG 디스플레이, LG 생활건강, LG 에너지솔루션, LG 이노텍, LG 화학, SK E&S, SKT, SK 하이닉스

II 환경부 고시(행정예고 중)

01 RE100-배출권 연계 관련 환경부 인증 지침 개요

☞ 개요

- (지침명)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 (행정예고) 2020.12.11-2020.12.30
- (주요 개정사항) 해당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원으로 생산된 전력을 일정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18조, 별표6)

02 개정 내용

01 인정 대상 → 태양광, 풍력, 수력(제18조제6항)

02 인정 방식 → 해당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간접배출량 감축 실적으로 인정(별표6)

03 인정 조건 → 당해 연도에 생산된 전력을 당해 연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별표6)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WWF,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한국신재생에너지 학회는 12 월 18 일(금) 기업재생에너지이니셔티브(CoREi) 참여 기업들을 대상으로 3 차 스터디 그룹 미팅을 가졌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본 미팅에는 한국에너지공단 및 솔라커넥트가 발표자로 참여하여,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가장 최근의 국내 규정 및 지침 공유, 재생에너지 전력시장 변화 트렌드, 기업 재생에너지 조달 사례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홍윤희 WWF-Korea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글로벌 패러다임”이라며, “탄소중립의 필요성과 이행 방안에 대한 인식 차이를 좁히고, 최고 경영자부터 실무진까지 진정으로 환경 관련 목표 이행을 제고할 수 있도록 RE100 에 대한 이해와 실행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김강원 한국에너지공단 정책팀장이 RE100 관련 규정 개정 현황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김강원 팀장은 12 월 16 일 산업부가 고시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라 △녹색프리미엄제 △전력거래계약체결 △공급인정서(REC) 구매 △지분참여 △자가용설비 설치를 통해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12 월 11 일부터 환경부에서 행정예고 중인 <RE100 배출권 연계 관련 환경부 인증 지침> 개정안에 따라 기업이 태양광, 풍력 또는 수력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간접배출량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창섭 솔라커넥트 매니저는 태양광 발전사업 토탈 서비스 플랫폼인 솔라커넥트의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기업 재생에너지 조달을 위한 컨설팅 사례 등을 소개했습니다. 이창섭 매니저는 기존에 REC 는 공급의무자만 구매 가능한 참여 제한적 시장이었는데, 대기업 수출경쟁력,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인해 국내 재생에너지 구매자가 23 개 RPS 공급의무자를 넘어서 수백 개의 민간 기업으로 확장되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모펀드 운용사, 글로벌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탈 등의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사업개발 및 투자를 진행하여 다각화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발표 이후에는 열띤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본 주요 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Q&A〉

Q: 녹색프리미엄 요금제는 어느 수준이며, 구매 물량은 충분합니까?

A: 김강원 팀장: 요금제는 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2 월 마지막주 하한가 및 입찰공고가 공지될 예정으로 재생에너지사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구매 가능 물량은 15-20TW 으로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첫 회인 만큼 수요파악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PPA 로 재생에너지를 구매 가능할 경우 어느 정도 인상폭이 예상되나요?

A: 김강원 팀장: PPA 는 발전사업자와 직접 논의를 통해 정하기 때문에 인상폭을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시장 확대와 기술개발에 따라 단가가 점차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A: 이창섭 매니저: 최근 2 년간 현물단가는 떨어진 상황이며, 예측 가능한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약단가는 시장 자체가 늘어나고 현물단가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 3 자 PPA 는 그 형태가 REC 계약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형태이며, 단가는 설치단가와 유사하게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Q: REC 거래 플랫폼도 1 월 1 일부터 바로 활용이 가능합니까?

A: 김강원 팀장: 1 월에 오픈 가능하지만 RPS 운영규칙 개정을 통해서 공식화되기 때문에 정확한 오픈 시점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Q: REC 가중치 고려한 RE100 용 REC 플랫폼이 구축되는 것입니까?

A: 김강원 팀장: REC 를 RE100 에 활용 시, 물리적 발전량에 따라 운영하며, 가중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전력량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Q: PPA 체결 관련 한전과 정산 시, 일반전력 포함 기후환경요금은 제외되나요?

A: 김강원 팀장: 제 3 자 PPA 는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전력과 따로 생각해야 됩니다. 다만 한전이 중개자로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부담해야 됩니다.

본부 소식

1. 보고를 통한 SDG 리더십, 민간 부문의 SDGs 공시 가속화 지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달성에 있어 기업의 행동을 가속화할 획기적인 이니셔티브, <보고를 통한 SDG 리더십> 행동 플랫폼(Action Platform for Reporting on the SDGs)이 기업의 공시 활동을 개선하고 향후 발전을 필요로 하는 이슈들을 파악해 발표했습니다.

<보고를 통한 SDG 리더십 행동 플랫폼>은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 GRI 스탠더드(GRI Standard)와 유엔글로벌콤팩트 10 대 원칙에 기반합니다. 본 플랫폼은 지난 4 년 간 23 개국 59 명의 임원급 민간부문 대표부를 상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기업이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자사의 기여도를 정의하고 향상하도록 지원했습니다.

2017 년 3 월 유엔글로벌콤팩트와 GRI 가 공동 런칭한 본 행동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 **리더십 인사이트** - 기업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공시 프로세스에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실용적인 [가이드라인](#), [도구](#), [자원](#)
- **역량 강화** - 지속가능발전목표 공시 교육과정 런칭 및 1,000 명 이상의 전문가와 함께 하는 [GRI](#), [유엔글로벌콤팩트](#), PwC 공동 주최 트레이닝 행사
- **옹호(Advocacy)** - 정책입안자와 투자자와의 관계 등 민간 부문의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공시 의지 제고

SustainAbility 가 본 행동 플랫폼의 일환으로 기업 행동 그룹(Corporate Action Group)에 참여한 20 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순위에 초점 맞추기** - 설문에 응한 기업의 50%가 구체적인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지향점을 명확히 설정하였습니다.

-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기업 목표 설정하기** - 응답 기업의 60%가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된 사업 타깃을 설정한 바 있으나, 구체적인 층위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와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과정이 요구됩니다.
- **기업 전략과 통합하기** - 응답 기업의 40%가 자사 핵심 사업과 연계된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행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25%는 행동들을 자사 전략과 직접적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공시에 대한 글로벌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KPMG 가 실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공시는 52 개국 5,200 개 대기업 가운데 2017 년 39%에서 2020 년 69%로 증가하였습니다.

피터 폴 반 더 위즈스(Peter Paul van de Wijs) GRI 최고대외사업책임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진전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민간 부문의 역할은 증대되고 있으며, 평가절하되어서는 안 된다. GRI와 유엔글로벌콤팩트 간의 파트너십은 기업이 자사의 영향력과 기여도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민간 부문과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그 다음 단계는 공시로서 기업 행위와 지속가능발전목표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층위에서 협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GRI 는 이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향후 모든 이해당사자들과 긴밀한 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산다 오잠보(Sanda Ojiamb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측정, 평가, 투명성 및 책임성은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 아젠다의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GRI 와 함께하는 우리의 행동 플랫폼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공시 프로세스 통합 강화를 위해 기업을 위한 새로운 틀을 개발하고 교육 이수를 장려해오고 있다. 행동 플랫폼의 작업에 기반하여, 우리는 진전 과정 트래킹, 리더십 장려, 유엔 10 대 원칙과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야심찬 목표설정을 위한 통합된 접근법과 함께 투명성과 책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본 액션 플랫폼에 참여한 에스터 안(Esther An) 시티 디벨롭먼트 리미티드 최고지속가능성책임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지속가능한 목표 설정, 발전 과정에 대한 트래킹과 공시는 기업이 향후 기후, 사회, 경제 및 규제 부문에서의 당면 과제에 알맞게 대응하도록 도움을 준다. 기업 공시 담당 부문은 자사의 사업 및 가치사슬과 일관된 명확한 목표와 활동에 대한 선제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해 투자자에게 확신을 주어야 한다. 대외적으로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빠르고, 명확하며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지속가능성 공시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리처드 엘리스(Richard Ellis) 월그린스 부츠 얼라이언스 CSR 부문 부회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우리 기업의 접근법을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내부적으로 이러한 이슈들을 제기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사미라 칸(Samira Khan) 세일즈포스 글로벌 임팩트 연계부문장은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디지털화는 글로벌 커뮤니티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우리의 시야를 넓힘으로써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진전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 동시에, 더 통합되고 표준화된 정보 공시를 가능케 하는 것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업의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유엔 ‘행동의 10 년’의 일환으로서, GRI 와 유엔글로벌콤팩트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진전을 위해 정보 공시의 영향력을 활용하는 협업을 향후 이어갈 예정입니다.

[원문 보기](#)

SDGs 소식

2. [COVID-19 와 기업 지속가능성] UNGC 회원사 대응 사례 - 아모레퍼시픽



UNGC 가입: 2007. 11. 29.

“저는 우리가 지금의 이 상황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과거 우리는 여러 다양한 위기를 마주했지만, 그때마다 다 함께 협업하며 극복해온 저력의 DNA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힘을 모으고 있는 치료제와 백신 연구는 곧 결실을 맺을 것이고, 코로나 19도 결국엔 극복될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긍정’으로, 그것이 우리 앞에 다가올 ‘정해진 미래’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서 항상 더 강해졌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결단코 이겨낼 것입니다.”

- 아모레퍼시픽그룹 대표이사 회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생태계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필두로 책임있는 글로벌 기업시민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며, 급변하는 경영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굳건한 위기 대응력을 갖춘 글로벌 뷰티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소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서경배 회장은 “우리 기업 생태계 안에서 함께 호흡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은 인간 존중의 가치와도 맞닿아 있으며, 고객·임직원·협력사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건강과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다.”라고 강조해왔습니다. 이러한 아모레퍼시픽그룹의 기업 경영철학은 코로나 19의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기업 비상 상황실을 선제적으로 운영하며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 및 안전한 일터 관리를 적극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파트너사 및 협력사 지원

- 가맹점 등 파트너사 80 여억원 직접 지원, 생산 협력사 2 천억원 대금 조기 지급/선결제
- 아리따움과 이니스프리, 에뛰드 등 가맹점 대상 32 억 원 규모의 제품 특별 환입
- 방문판매 카운셀러 소득 보전 및 영업활동 지원 15 억원
- 카운셀러 면역력 강화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15 억원 지원
- 거래처 판촉물 지원, 수금제도 변경 등 다양한 형태로 추가 20 억원 지원
- 가맹점 등 협력사에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개인 위생용품을 무상 지원

의료진의 피부 진정 및 생활용품 지원

아모레퍼시픽은 코로나 19 극복과 피해 복구를 위해 힘쓰는 대구지역 의료진이 오랜 마스크 착용으로 피부 트러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부 진정과 건강을 돕기 위한 화장품을 지원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대구지역 코로나 19 대응전담병원 다섯 곳에 근무하는 1,100 여 명의 의료진에게 전달되었으며, 대구 지역 의료진의 노고와 희생에 대한 감사와 응원 메시지를 함께 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긴급 지원이 대구 경북 지역 피해 복구를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대구경북지역 의료진에게 총 5 억 원 상당의 현금과 의료진의 면역력 향상을 위한 건강 제품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아모레퍼시픽 해외 법인에서도 현지 의료진의 피부 손상에 도움이 되는 제품 및 샴푸와 같은 생활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임직원들이 직접 사무실에서 care pack 을 포장하여, 자원봉사단체(Everyday heroes SG)를 통해 병원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중국, 대만, 미국법인 또한 코로나 19 피해복구와 의료 지원을 위한 기부금 외에 화장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하였습니다.

중국법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지 3억 5천만 원 성금 전달

아모레퍼시픽 중국법인은 후베이성 자선총회에 200 만 RMB(한화 약 3 억 5 천 만원)의 성금을 전달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의 의료 시설 및 방호 물품을 지원



아산·진천 아모레 카운셀러, 우한 교민 대상 물품 기증

충남 아산시와 충북 진천군에서 활동하는 아모레 카운셀러들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해당 지역에 격리된 중국 우한 교민과 거주자를 돕기 위해 우한 교민이 머무는 임시 생활 시설에 방문해 심시일반으로 마련한 물품을 기증하고 체류자를 격려

* 면역력 강화에 좋은 바이탈뷰티 명작수, 깨끗한 세정을 돕는 비누(3,240 개) 등 물품 지원

서경배 님, 플라워 버킷 챌린지 캠페인 동참, 화훼농가 및 희망가게 매출 지원

인천과 대전에서 운영중인 세 곳의 희망가게 꽃집에서 꽃바구니를 구입해, 전국 220 여개 희망가게 창업주들에게 희망의 마음을 전달



한부모여성 가장 창업점포 ‘희망가게’ 지원

아모레퍼시픽그룹과 아름다운재단이 함께 진행하는 한부모여성가장 대상 창업지원사업인 ‘희망가게’

전국 220 여 매장에 손 세정제를 후원



사전 모니터링과 누구보다 발 빨랐던 대응

2020년 1월 3일 중국 우한에서 원인 미상의 전염병이 발생했다는 첫 언론 보도 시점부터 리스크관리사무국과 안전환경경영팀은 모니터링에 착수하였고 신종 바이러스일 것이라는 추측 보도 시점인 6일에 경영진 보고와 함께 중국의 상황 변화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코로나 19에 대한 임직원에게 대한 건강 안전 수칙, 중화권 출장 자제 요청을 게시하고, 중국에서 입국한 국내의 코로나 첫 발병자가 발생하자마자 즉시 코로나 19 비상 상황실(Coronavirus Response Taskforce Team)을 조직하여 코로나 19에 확산에 대비한 조직을 구성하였습니다. 상황실에서는 코로나 19 진행 경과 모니터링, 구성원 안전지침 수립 공지, 위생용품 수급 배포, 각 지역별 국내 조직

및 해외법인과외 안전 대책 지원 및 소통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주 단위 가이드 공지를 기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P. C. D. 감소 원칙에 따른 단계별 대응 진행

아모레퍼시픽 내에서 감염병 발병과 확산을 막고 최대한 발병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① 자사 직원 및 자사의 이해관계자가 코로나 19 에 감염될 확률(Probability)을 최대한 낮추고, ② 감염 경로인 사람들간의 접촉(Contact)을 최소화하며, ③ 감염자가 다시 타인에게 전파할 수 있는 기간(Duration)을 최소화하는 대처가 필요하다는 P.C.D. 대원칙에 따라 코로나 19 상황실에서는 정부의 지침을 참고로 심각성 단계를 설정하고 단계별 대응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Probability] - 위생 용품 지급, 열화상카메라 운영

아모레퍼시픽은 그룹사 내 모든 구성원들에게 감염의 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다각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구성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강력한 내부 안전지침 진행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보다 2 주 빠르게 진행하였고 전 임직원은 물론이고 아모레퍼시픽과 거래하고 있는 판매대리점, 방판 카운셀러, 협력사 직원들까지 그룹 내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마스크, 손소독제 등 위생 용품을 지원 공급하였습니다.

- 1 월 30 일부터 마스크를 전직원에게 배포, 상시 착용 공지, 손세정제와 손소독제 비치
- 2 월 6 일 열화상카메라를 전 사업장 출입 통로에 배치, 회사 내부나 외부로부터의 감염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대응
- 마스크 공급 차질이 예상되어 선제적으로 다회용 마스크 4.6 만개를 배포, 구성원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

[Contact] - 외부와의 접촉 제한 / 출장 / 사옥 안전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시작된 3 월 23 일보다 두달 전인 1 월 23 일부터 중화권 방문자의 회사 출근을 제한하는 조치와 함께 중화권으로의 출장을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다수 인원이 참석하는 회의나 행사 등을 자제 요청하는 등 각 상황에 따른 안전지침 및 행동 가이드를 공지하여 직원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상황에 맞게 매주마다 바꿔 나갔습니다. 미팅, 정기 조회, 집단 강의를 내부 화상시스템을 활용하여 전환하고 사업장 간의 이동 금지, 외근, 출장 등을 제한하여 임직원이 외부와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막고자 하였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본사 사옥 방역을 시작으로 국내 지역 사업장 및 주요 매장 또한 2 월내 방역 진행하였으며 매장을 통한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각 판매현장에서 준수하여야 할 코로나 대응 예방수칙 (영업현장 가이드, 특히 테스터 사용 금지와 관련)을 배포하였습니다.

[Duration] - 자체 격리 가이드

아모레퍼시픽은 고열, 호흡기 이상 증상 등 코로나 19 유사 증상이 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본사 내 위치한 의료기관인 아모레퍼시픽 부속의원 통해 조치하고 증상자의 출근을 제한, 재택 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감염에 취약한 임산부, 확진자와의 직간접 접촉자에 대하여 14 일간의 재택근무(출근제한)을 부여함으로 내부 임직원과의 접촉 시간을 최소화 시키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확진자 발생의 경우를 대비하여 확진자를 빨리 찾아 전파될 수 있는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열

고열이 있는 직원의 출입제한 조치, 열화상카메라 운영, 출입 태그 기반으로 임직원의 사옥내 동선을 즉각적으로 파악하는 등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옥내 동선 파악 데이터를 일일 단위로 관리하였습니다.



글로벌 코로나 확산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아모레퍼시픽은 중장기적인 대응방향을 수립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사태가 종결될 때까지 코로나 비상상황 조직을 중심으로 내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정부 가이드에 따라 생활 속 거리두기, 생활 방역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며,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지친 임직원의 정신건강을 위한 멘탈케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파트너 협력사의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 복구에도 글로벌 기업 시민으로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사 가치사슬 안에서 사회적 및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여, 공유가치창출 일환으로 해피바스 새니타이저를 개발, 카운셀러 및 아리따움 거래처에 약 29,000 개 기부 예정입니다.

지역사회 위생 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2003년부터 지역사회 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을 대상으로 화장품, 생활용품을 지원해 왔습니다. 연간 전국 3천여 개 기관 및 시설에 소비자가 기준 총 50억 규모로 진행하였는데 코로나 19를 극복하기 위해 위생과 청결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생활용품 사용 여력이 부족한 사회복지 기관과 시설 대상으로 기존 대비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20년 상반기에만 3천여 개 시설을 대상으로 50억 규모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3. [SDGs 솔루션] 공업수 재활용에 기여하는 더 나은 여과 시스템



*Sofi Filtration*은 화학 물질이나 일회용 필터를 사용하지 않는 에너지 효율적이고 자동화된 공업수 필터를 개발하였습니다.

Sofi Filter는 산업 현장의 오폐수에서 고체 입자를 제거하는 완전 자동 마이크로필터 시스템입니다. Sofi Filter는 채광, 건설, 열 및 에너지 발전 등 대규모의 수자원을 사용하는 기업이 자사의 오폐수를 관리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기업의 비용을 절감하고 오폐수로부터의 오염 리스크를 완화합니다.

Sofi Filter의 자가 세척 기능은 제품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유지비용을 낮추며 여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본 여과 시스템은 화학 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며 카트리지가나 필터 백 등 재사용이 불가능한 필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Sofi Filter는 공업수 1 세제곱미터 당 0.05kWh 만을 사용하여 비교적 에너지를 덜 소비합니다.

현재, Sofi Filtration은 공업 오폐수 배출 감소를 위해 배출세가 도입된 선진국의 기업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핀란드에서는 1 세제곱미터의 공업수 당 수도세와 오폐수 배출세를 포함하여 3 유로를 지불해야 합니다. Sofi Filtration은 이 가격의 10%만 지불하고 자사의 오폐수를 여과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기업이 사용하는 수자원의 양이 월등히 적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비용 감소로 인해, 본 여과 시스템 기술에 대한 기업의 비용 회수기간이 매우 짧아집니다.

왜 Sofi Filtration에 주목해야 할까요?

유럽에서는 중공업과 에너지 발전이 전체 수자원 사용량의 40%가량을 차지하며, 이는 농업이나 위생 시설 등 기타 사용에서의 경쟁을 심화합니다. Sofi Filter와 같은 기술은 재활용되고 다시 사용되는 오폐수의 비율을 높이고 수자원 공급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솔루션이 다루는 지속가능발전목표

깨끗한 물과 위생



선진 수자원 여과 시스템은 산업이 수자원 사용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혁신과 인프라 구축



산업 시스템에 Sofi Filter 를 내장하는 것은 수자원 재활용을 증가시키며, 이는 공업수 사용 감소와 천연 자원 보호에 기여합니다.

[자세히 보기](#)

UNGC 회원 뉴스

1. LG 화학, 국내 기업 최초로 중국 내 재생에너지 직접구매



- LG 화학, 국내 기업 최초 전세계 모든 사업장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RE100 (Renewable Energy 100)'을 선언하고 2050년 탄소중립 성장 적극 실현하고자 함
- 그 일환으로 중국 장쑤성(江蘇省) 우시(無錫) 양극재공장이 현지 풍력/태양광 전력판매사 '윤풍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수급 계약 체결
- 본 계약은 친환경 전기를 공장에 직접 제공받는 'PPA(전력 구매 계약)' 방식을 채택하여 탄소 감축에 기여
- LG 화학 관계자, "전구체 및 양극재 생산 과정에서는 직접적인 탄소 발생이 거의 없어, 생산 등에 사용되는 전력만 재생에너지로 바뀌어도 90% 이상의 탄소중립 실현이 가능하다"고 설명
- 나아가 저장성(浙江省) 소재 전구체 공장도 PPA를 통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검토해 중국 내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 90% 이상 탄소중립을 실현할 것이라 밝힘

아시아경제

2. 교보생명, 다양성 위해 여성임원 비중 확대 본격화

교보생명 임원 재직 현황			
2020년 9월 기준 재직 임원		2021년 정기인사	
남	여	남	여
39명	2명	12명	1명

- 교보생명, 올해 12월 단행한 인사에서 1명의 여성 임원을 신규 선임
- 이와 같은 인사의 결과로 교보생명은 총 3명의 여성 임원을 보유하나, 현재 유리천장 현상은 심각한 상태
- 교보생명 이사회 중 여성 임원은 전체 41명 중 3명으로 4.9%에 머무르며, 2016년 9월부터 여성임원의 추가 선임 및 인력 변동이 일절 없었음
- 교보생명은 유리천장 문제 해결을 위해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여 여성 조직원의 성장과 발전, 동기부여 등에 목적을 부여하며, 여성인력양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

CEO 스코어데일리

3. 한국타이어, 탄소경영 기후변화대응 '리더십등급' 선정



- 한국타이어, 2020 년도 탄소경영 '기후변화대응' 부문 리더십 등급 선정
- 본 평가는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CDP가 주관하였으며, 시가총액 글로벌 상위 500 개 기업 및 국내 상위 200 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
- 한국타이어는 본 평가에서 A-등급을 부여받았으며, 이로써 국내 기업 중 24 개 기업에만 부여된 리더십 등급에 국내 타이어 기업 중 유일하게 선정
- 한국타이어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연비효율 향상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는 노력 등의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실시 중

4. 한국환경공단, 주한덴마크대사관과 바이오가스·그린수소분야 협력



- 한국환경공단-주한덴마크대사관, 지난 14 일 '순환경제: 바이오가스·그린수소 생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바이오가스와 그린 수소 생산 분야의 양국 협력 증진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본 협약 체결은 향후 양국 간 협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본 협약에는 내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의 준비 및 실행 과정에서 개도국에 전파할 수 있는 순환경제 접근 방법 발굴 등의 내용과 더불어 순환경제 전환 촉진 정책 및 활동, 바이오가스 생산, 그린수소 전환 사업에 대한 민관협력 프로젝트, 해외 사업 수행 및 발굴 등을 포함
- 아이너 엔센 주한덴마크대사, "이번 양국 협력은 대한민국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을 위한 양국의 모범 협력 사례가 될 것"이라며 "특히, 유기 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가스와 이를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은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를 지향하는 여러 나라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힘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12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UNGC 에 가입한 회원사는 5 곳입니다.

- 주식회사 이빛컴퍼니
- 롯데정밀화학(주)
- 한국전기안전공사
- 솔젠트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 COP/COE 제출회원

12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8 개 회원사가 COP 및 COE 를 제출했습니다.

- 아모레퍼시픽
- 코오롱인더스트리(주)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제주개발공사
- 해양환경공단
- 태광실업
- 미술등록협회
- 한국공항공사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 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 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시는 기업/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발간본을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첫 COP 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 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첫 COE 를 제출하고, 이후 매 2 년마다 COE 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 년 후에도 COP/COE 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2020 년도 연회비 미납 회원사 안내

<1-4 분기 연회비 미납 회원사 (매출액 USD 5,000 만 달러 이상 기업)>

롯데쇼핑, 한국남동발전, 휴맥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마사회, 한국중부발전, 현대모비스, 이화다이아몬드공업, 삼덕통상, 한국부동산원

<1-4 분기 연회비 미납 회원사 (SME,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

대덕섬유, 테라컨설팅그룹, 씨사이드코리아, 사람과세계경영학회, 충북대학교,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사)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산업정책연구원, 한국도자재단, (사)내부장애인협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이젤, 유엔한국협회, 이젤, 한국임업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국제융복합협회

2019 년부터 시작된 UNGC 글로벌 연회비 정책의 변화로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사는 본부 및 협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연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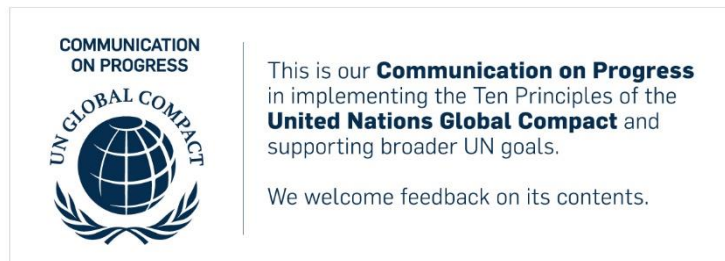
*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T. 02-749-2149/50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4.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 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로고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이며, COP/COE 가 active 인 상태
- 기업의 연간 총 수익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참여레벨을 선택한 단체
- COE 를 제출한 비영리 단체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 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 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

담당자: 이수란 과장/주임연구원